



빨간 장미의 유혹 13일 제주시 조천읍에 소재한 북촌에 가면 카페를 찾은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장미꽃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2공항 도민 의견에 대한 국토부 판단은?

지난 13일 제4차 도민경청회... 의견 수렴 마무리도, 수렴된 의견 종합 내달 초 국토부에 공식 접수 국토부, 부처 의견 청취 후 7월 기본계획(안)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3일 열린 제4차 도민경청회를 끝으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도민경청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제주자치도는 그동안 도민경청회에서 받은 서면 의견 및 찬·반 발표의견과 함께 이날 말까지 진행하는 도민 의견수렴 내용을 종합해 6월 초 국토교통부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공식 의견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각 부처 의견을 들은 후 7월 중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을 고시할 예

정이다. 지난 13일 오후 제주시 제주실용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 제4차 도민경청회는 제2공항 기본계획안 용역에 참여한 정기면 포스코이앤씨 이사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 설명에 이어 찬·반측 대표자의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입장 발표, 플로어 의견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찬성 측 대표자로 오병관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장과 조승철 제주안전실천시민연합대표, 반대 측 대표자로 박찬식 시민정치연대제주가치 공동대표, 김현지 성산읍 주민이 나섰다.

이날 반대 측 대표자로 의견 발표에 나선 김현지씨는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성산을 일대 조류 충돌 위험성과 동굴·습곡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제주도가 나서 공동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찬식 공동대표는 “제2공항항과 제2공항의 수용능력을 합치게 되면 65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시설이 제주도에 만들어지는데 왜 불필요하게 제주의 소중한 자연생태환경과 경관을 파괴하면서 제2공항을 지어야 하나”면서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현 제주공항의 시설과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면 된다”며 현 제주공항 확충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는 지난 2018년 3000억원을 들여서 공군기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3000억원으로는 공항을 지을 수 없다”면서 “이것은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이용하겠다는 뜻이며 이에 대해 국방부는 아직까지 제2공항을 군사

기지 사용 의지를 철회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조승철 대표는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의 수용능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제2공항 건설이 최적”이라며 “공항 인프라가 확충되면 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병관 추진위원장은 “제2공항이 건설되면 비행기 연발착과 결항 사태를 해결하고, 제주공항과 제2공항이 상호 보완되면서 제주 동·서부 지역이 함께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2공항은 제주시에 교통, 환경, 쓰레기, 오페수, 소음문제를 크게 완화시켜주고, 제주공항과 제2공항이 상호 보완되면 제주시 동·서부지역의 상권이 모두 살아날 것”이라며 “이제는 8년의 갈등을 끊고 제주의 발전을 위해 제2공항이 건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접수도, 7월부터 접수 건에 대한 사실 조사 착수

제주도는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8차 추가신고를 받고 있다. 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5월 현재 기준 희생자 254명, 유족 1만3250명으로 총 1만3504명이다. 2021년 제7차 추가신고와 비교하면 희생자는 73% 증가했다. 도외 및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4·3지원과),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행정시(4·3지원팀)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는 해당 시·도의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고,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에 필요한 서식은 도내 읍면동 및 제주도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있는 4·3종합정보시스템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2021년 ‘4·3특별법’ 개정으로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가족관계 정정 등이 진행되고 있고, 진상규명, 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을 위해 7차례에 걸쳐 신고를 받았으나 아직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가 많다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의 건의에 따라 8차 추가신고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8차 추가신고 접수 종료 이후 7월부터 접수 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추진하며, 하반기부터 제주4·3실무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고대리기자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재수립도, 방역 완화 따라 수정... 선별진료소 계속 운영

정부가 약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완전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재수립한다. 제주도는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당초 수립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이번 정부의 완화사항을 반영해 계획을 재수립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대응의 핵심인 확진자 입원치료를 위해 중증환자는 상시병상으로 지정된 제주대학교병원 10병상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경증환자 등은 현재 확보된 자율격리병상 150병상을 운영하면서 점차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고위험군 중심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시행을 위해 도내 13개소의 선별진료소는 운영한다. 13개소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6개소,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한마음병원, 중앙병원, 한국병원,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열린병원 등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166개소(제주시 128개소, 서귀포시 38개소)와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2개소(제주시 1개소, 서귀포시 1개소) 운영은 현재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위기상황이 완전하게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번 방역조치 완화는 일상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시작점”이라며 “그동안 방역수칙을 준수한 도민과 일선에서 헌신한 많은 관계자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전세버스 운임 신고제 시행... 3면 / 무오법정사 둘러길서 숲길체험... 5면

JEJU SamDaSoo
25th ANNIVERSARY

제주 삼다수

늘 한결같은니가 우리가 믿는 물

LOVING JEJU GIVING BACK
고향사랑 기부로 제주와 고향(故郷)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